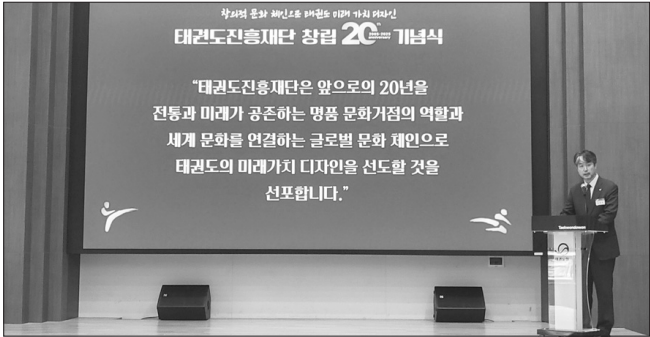


태권도원 누적 방문객 300만명 돌파

개원 11주년 외국인 방문객 전년 대비 60% 증가… 태권도 문화 확산 중심지 성장

태권도원 누적 방문객이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스포츠 관광을 통한 태권도 문화 확산 중심지로 성장했다. 태권도원은 2014년 4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에 개원한 이후, 첫째 14만 명과 2015년 25만 명, 2016년 27만 명 등 방문객 수는 지속 성장해 왔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올해 10월 태권도원 누적 방문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 태권도원이 개원 11년 동안 성장세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는 외국인 수련생과 관광객의 태권도원 방문이 불가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국내외 태권도 대회와 대규모 행사 개최 및 유치도 중단했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태권도원 방문객은 2023년과 2024년 30만 명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2025년은 32만 명의 방문객을 내다보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은 올해 5월부터 ‘태권도원 입장료 무료’, ‘태권도 관광 상품-태권스테이’ 출시, 무주 반딧불 축제와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등 지역과 협력한 적극적인 태권도원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김중현 이사장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10월까지 태권도원을 찾은 외국인인 2만 6천 명에 달하며 전년 대비 60% 증가하는 등 태권도를 활용한 외국인 스포츠 관광객 유치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무주군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그동안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을 비롯해 ‘2025~2026 한국관광100선’(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진로탐색활동 협력 분야 표창(교육부), 2024년 공공기관 아에스에스(ESS) 우수사례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전북형 치유관광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 이벤트 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스포츠안전재단) 등 태권도원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왔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2025년은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 태권도원 개원 11주년을 맞는 해”라며 “더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문화를 즐기고 태권도 수련과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및 무주군 등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려견과 함께 뛰는 트레일레이스

제2회 캐니크로스 장수 성료

‘한국의 사모니’라 불리는 장수군에서 반려견과 함께 걷고 뛰는 트레일레이스인 ‘제2회 캐니크로스 장수’가 장수 승마로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캐니크로스(Canicross)란 반려견과 함께하는 코로스 컨트리 달리기 스포츠이다. ‘Canine(개)’와 ‘Cross Country(크로스컨트리)’의 합성어로 사람과 반려견이 한 팀을 이루어 함께 달리는 유



합형 크로스컨트리 스포츠이다. 지난 1일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各地的 반려인들이 함께 참여해 사람과 반려견이 한 팀이 되어 자연 속을 달리

며 교감하는 축제로 꾸며졌다. 이번 대회의 코스는 3km 캐니크로스(경쟁코스)와 6km 도그트레킹(비경쟁코스)으로 구성됐고 캐니크로스레이스는 15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출발했으며 도그트레킹은 레이스 시간 동안 자유 출발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캐니크로스 레이스 1위는 최재경&부추 선수(12분41초)와 이유주&하니 선수(17분24초)가, 2위는 김용정&로니 선수(12분55초)와 성다예&꿈 선수(18분16초)가, 3위는 김재원&폭스 선수(13분55초)와 이호인&이람보 선수(18분33초)가 남자부, 여자부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수=고관호 기자



등 한방치료,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 관리 교육(틀니 관리법, 치실질)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임실·순창 관광 협력 모색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삼진강권역 관광활성화 포럼 개최

진안군은 4일 국립진안고원산립치유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삼진강권역 관광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진안군 주관으로 삼진강을 매개로 한 전북자치도 내륙권 삼진강권역 3개 시·군(진안·임실·순창)의 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권역 단위 관광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춘성 진안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창욱 진안군의회의장,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영규 사무처장, 지역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삼진강권역 개발에 대한 관심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전춘성 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환 전 문체부 차관의 기조 강연, 양영관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소장의 기조 발표, 전남대학교 신임수 교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운 박사의 주제발표, 류인평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포럼의 핵심 성과는 진안군·임실군·순창군의 ‘삼진강권역 관광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광자원 공동 발굴 및 기획 콘텐츠 개발 △광역단위 관광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협력 등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기반 마련과 더불어 공모사업 공동 대응, ‘삼진강권 관광협의체(가칭)’ 구성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환영사에서 “삼진강은 전북 내륙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강으로 진안의 마이산과 홍산, 임실의 치즈, 순창의 전통장류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전북 관광의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세 지역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관광협력의 새로운 물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제33기 장수귀농학교’ 운영

장수군은 지난날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외통자연휴양림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제33기 장수귀농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그간대로에서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각 분야의 전문강사와 현장 중심의 일일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장수군 귀농·귀촌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귀농창업 실무, 농가 견학, 성공사례 특강 등 총 11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교육생들은 선배 귀농인의 경험을 듣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장수 지역 농업환경과 정착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 프로그램 ‘귀농귀촌 위킹홀리데이’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귀농 창업의 현실과 과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결과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4일 군청 강당에서 2025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 성과와 향후 보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는 주영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부서별 팀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원 50여 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광객 유치 현황 △홍보·마케팅 결과 △안전 전·교통 관리 체계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강조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년 대비 먹거리부스 판매액은 58% 농특산물과 홍삼·수삼 등의 판매액은 49%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인 반응을 이끌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속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건 1천8백여만 원, 세외수입 45건 1천9백여만 원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1월에는 고액 체납차 주거지 방문, 자동차 쪽배 설치, 읍주단속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물, 5~7일 전 품목 30% 할인행사

진안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은 진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함께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 품목 3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농가에서 정성껏 재배·가공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진안고원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발급받으면 전 품목에 대해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90만 원 한도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